

2023

제주여성평화워크숍

공감과 연대

첫째날 | 경험나누기, 배우기, 힘주기

둘째날 | 연대와 실천

2023.10.13금 - 14.토
제주 강정마을 일대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서귀포시 말길로 187)

주관

강정평화네트워크

경기여성네트워크

여성병역거부자모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원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문의

010.4767.1053

031.233.8673

(경기여성단체연합)

02.929.4847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2023 제주여성평화워크숍

공감과 연대

일시·2023.10.13~14.

장소·제주 강정마을 &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공동 강정평화네트워크·경기여성네트워크
주관 여성병역거부자모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자료 순서

2023 제주여성평화워크숍 일정표	·3
워크숍 참가자 안내	·4
워크숍 참석자	·5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행사장과 숙소	·7
공동주관 단체들	·8
참고자료	
1. 강정과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간략한 소개	·11
2 워크숍 토론 요약	·16
3 워크숍 발표 자료 모음	·18
참가자들의 이야기	·61

2023 제주여성평화워크숍 일정표

	2023년 10월 13일(금)	2023년 10월 14일(토)
	여성평화워크숍	연대와 실천
오 전	~~>> 제주 강정마을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아침식사 8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평화백배(선택) 07:00~ ○ 여성평화워크숍 9:30~11:30 앞으로 할 일, 무엇을 & 어떻게? 진행_이정아
오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13:00~13:30)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1층 카페 ○ 여는 행사(14:00~14:30) 진행_최성희 인사와 감사의 말씀 나누기 ○ 여성평화워크숍 : 경험 나누기, 배우기, 힘주기 진행_고유경 14:30~16:00 각 지역 활동경험 나누기_ 경기(이정아)·평택(연꽃)·군산(오이)·성 주(손소희)·강정(최혜영) 16:00~16:30 휴식 16:30~18:00 Q&A & 공동의 과제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13:30 해군기지 앞 인간띠 잇기 참여 및 점심 식사(삼거리 식당) 인간띠 잇기 진행_카레 ○ 13:30~14:30 평가 & 마무리 진행_김정수 ○ 15:00~17:00 강정탐방투어(선택) 안내자_강정천_엄문희 강정포구_정선녀
	저녁식사와 휴식(18:00~19:30)	
저 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꿍 프로그램(19:30~21:00) 진행_보말 	

2023 제주여성평화워크숍 참가자 안내

(1) 13일 저녁 프로그램 준비물 안내

- 참가자가 서로를 알아가며 의미 있는 물건을 교환하는 '이야기 마음 상점' 시간이 있습니다.
- 참여하시는 분들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담긴 무언가를 가져와 주세요. (값어치 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면 더 좋겠습니다. 예; 평화활동 관련 기념품, 직접 만든 무언가, 마음 깊이 새기며 읽은 책 등등)

(2) 숙소에 필요한 물건

- 숙박하는 참여자 각자 수건은 필수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 샴푸, 린스 등은 비치되어 있지만 양이 부족할 수도 있어 꼭 필요한 분은 갖고 오시길 권합니다.
- 비누와 치약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3) 강정 날씨와 준비하실 옷 등

- 아침저녁 일교차는 다른 지역과 대개 비슷하고 아열대 기후 특징이 조금 남아있으니 옷 준비에 참고하세요. 해군기지 앞 백배, 인간띠, 강정천 탐방 등 야외 활동 시에는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끈 달린 모자와 튼튼한 신발이 있으면 좋습니다.

(4) 식사

- 13일(금) 저녁은 강정마을 활동가분이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채식 중심).
- 14일(토) 아침은 자원자들 중심으로 준비하실 예정입니다.
- 14일(토) 점심은 삼거리식당에서 먹을 예정입니다(채식 & 비채식).
- 13일(금) 저녁 이광희&정미아, 14일(토) 점심 김종환, 그리고 빵과 짬을 후원해 주신 사하자&정선녀님께 감사드립니다.

(5) 센터 내 비치된 컵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텀블러 등 권유!!

2023 제주여성평화워크샵 참석자(접수순)

이름	지역	소속	이메일
사하자	강정	강정	wcfbh5072@gmail.com
테라	강정	강정마을	5rhythmstera@gmail.com
최혜영	강정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hiyoung0322@gmail.com
이미선(복희)	강정	강정	nso0810@hanmail.net
조은	강정	강정	g00409@naver.com
달해	강정	강정	unhyemyong@gmail.com
반디	강정	강정평화네트워크	malaikaju@naver.com
엄문희	강정	강정평화네트워크	iloveyou08@naver.com
카레	강정	강정평화네트워크	kaia.vereide@gmail.com
정선녀	강정	강정마을	Holyjean@hanmail.net
최성희(성계)	강정	강정마을	armha2013@gmail.com
탄탄	강정	강정	ryansong1@naver.com
인혜	강정	강정	inhae7643@naver.com
김인순	경기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경기	경기여성단체연합	mjhija@hanmail.net
이미라	경기	안양여성의전화	mira0302@hanmail.net
김희경	경기	수원여성회	influwitt@gmail.com
오이	군산	평화바람 군산	outerspace52@gmail.com
여혜숙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mambig@naver.com
김정수(물쌈)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hesed62@empas.com
한정숙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cliohan@snu.ac.kr
김은희(나무)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tree711@daum.net
이은주	서울	Presbyterian Church (U.S.A.)	unzu.lee@pcusa.org
고유경	서울	평화와자유를위한국제여성연맹	ykko344@gmail.com
박형선	성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pa1040@hanmail.net
손소희	성주	성주	handabal0625@naver.com
임순분	성주	경북 성주군 소성리	
부순정	제주	제주녹색당	boosoonj119@gmail.com
윤슬	제주	제주	jihyeda@gmail.com
보말(늘보)	제주	제주	simplechorok@gmail.com
모슬포사랑	제주	제주	
최정희(오늘)	평택	평택평화센터	nabats@hanmail.net
연꽃	평택	평택평화센터	limyk4011@gmail.com
권현미	평택	평택평화센터	brice23@hanmail.net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행사장과 숙소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제주 서귀포시 말질로 187)										
다락	다락 숙소(웃뜨르, 6-8인)						전망대			
4층	부엌 및 식당 13일(금) 조별 모임(3개조) & 그외 실내 프로그램			쉼방 (1인 침실, 3인 온돌)		화장실 & 욕실 1개	세탁실	전망대	엘리베이터 ★ 1층 ~ 4층 이용	
3층	구럼비 1 (2인실 온돌)	구럼비-2 사용불가	구럼비 3 (1인 침실, 1인 온돌)	구럼비 4 (1인 침실, 1인 온돌)	구럼비 5 (1인침실, 1인 온돌)	화장실 & 욕실 3개	개인 공간			
2층	프코 센터 사무실	세미나룸 13일(금) 여는 행사 및 지역발표 & 조별 모임(2개조)				화장실 1개	기도방 및 창고 등			
1층	무인 카페 및 쉼터 13일(금) 접수			베트남 피에타상 & 빅스 신부 기념비(야외)		화장실 1개	개인 공간			

공동주관 단체들

■ **강정평화네트워크**는 2020년 9월 21일 세계평화의 날에 강정지킴이들이 만든 단체이다. 강정평화네트워크는 군사주의에 반대하며 제주해군기지 폐쇄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강정에서 시작된 평화/생명(생태/환경) 활동을 이어간다.

■ **여성병역거부모임** : '여성'이라는 이름 하에 국가의 징집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들이 이러한 분류를 병역의 연장선에서 다시 물으며 거부 행동과 연대로 이어나가는 모임.

■ **경기여성단체연합**은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5개의 지역 여성단체들의 연합조직이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가운데 한 곳입니다. 1998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회원단체조직을 기반으로 수 많은 현안과 사회적 의제에 대응하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대를 통해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성평등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Women Making Peace**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1995년 이후 북한의 자연재해로 식량난이 심각해 지던 시기, 북한여성과 아동지원 캠페인(밥나누기, 사랑나누기)을 시작하면서 1997년 3월 28일 전문적 여성평화운동단체로 출발했습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를 창립멤버들은 1991~93년 남북 최초의 민간교류인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남-북-일 여성교류)를 기획하고 진행한 분들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평화여성회**는 남북여성교류, 북한여성과 어린이지원, 평화군축운동,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와 거버넌스,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위원회 서울 포컬포인트, Women Cross DMZ 연대와 한반도 종전과 평화구축을 위한 Korea Peace Now, Korea Peace Appeal 캠페인 참여, 여성평화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여성회**는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여성참여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한 정책 제안, 여성평화 역량강화, 젠더와 평화교육, 국제연대활동 등의 차원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연락: 02-929-4846/4947)

후원기관

■ 사업 내용

- 생명과 평화 영성을 위한 전례 및 사목 활동
- 생명과 평화 실현을 위한 학술, 교육, 문화 활동
- 생명과 평화 실현을 위한 지역 주민 및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F 우뜨르 (다락방)	컨양대2 / 평화 메시지관
4F 할망물 (식당)	컨양대1 / 식당
3F 구렁비 (손님방)	사제관 / 제주역사관
2F 강정 공소 (회의실)	사무실 / 기도실 / 교총 프란치스코 전서관
1F 꺾꺾글라 (무인카페)	광장 / 길 위의 신부 평화공명

“전쟁과 무기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증명해 준 사실이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도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인간적인 것인지, 또 그것은 지구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생명과 자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밑바닥에서부터 파괴하는 최악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세계 곳곳의 많은 생명을 학살하고, 짓밟아 온 인간의 가장 어려운 선택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일깨우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 2015. 05. 18. 경우일 주교,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설립 준비모임에서

“법인은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에서 세상에서 내주신 고귀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재단법인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경관 제 3조 (목적)



찾아오시는 길

전화 064)739.0951~2
팩스 064)739.0953
메일 st.francispeace@gmail.com
주소 (63563)
서귀포시 말길로 187(강정동)

방문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단체에서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항

- ① 공항 5번출구 앞 6000번 공항 리무진 승차
→ 강정농협 정류소에서 하차 (배차간격 20분)

제주시

- ① 제주터미널에서 781, 782, 782-1, 740번 버스 탑승
→ 서귀포 중앙로터리에서 하차 후 5번 버스로 환승
→ 강정초등학교 하차

서귀포시

- ① 중앙로터리에서 5번 버스 탑승 → 강정초등학교 하차
- ②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 정류소에서 600번 리무진 버스 탑승
→ 강정농협 하차(코사마트, 나들가게 사거리에서 강정초등학교 방면 50m)

■ 참고자료 1.

강정과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강정(江汀)은 물의 마을이다. 화산섬으로 건천이 많은 제주에서 드물게도 맑은 용천수가 쉬지 않고 흐르는 곳이다. 해군 기지가 세워진 곳은 구름비라 불리는 1킬로미터 이상 통 바위 해안으로 절대보전지역이었고 강정 앞바다와 범섬 일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등 7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 보전된 곳이었다.

2007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해군기지 유치 계획이 강정에 들어왔다. 8월 20일 유권자의 70%이상이 모인 마을 총회에서 94%이상이 기지건설을 반대했다. 그러나 2009년 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을 날치기로 해제하였다. 구름비 해안 위 기지 건설 공사는 201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 3월 7일에 시작된 구름비 발파는 두 달간 지속되었다. 그 해 9월 2일에는 구름비로 가는 길목에 강제로 펜스가 세워졌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한 탄압은 전례 없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체포·연행된 사람의 누계는 약 700여명에 달했다. 30여명이 구속되고 60여명이 감옥을 경험하였다. 약 4억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심지어 해군은 2016년 2월 해군기지 완공이후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34억 5천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이는 2017년 당사자들과 각계의 항의 이후 철회되었다). 국제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도 이어져 2명이 각각 강제 출국, 출국 명령을 받았으며, 12명이 체포되었고 23명이 입국 거부되었다.

2019년 5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경찰청에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마을 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파괴되었다. 더구나 강제로 진행된 2018년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 개최를 전후해서 찬반 주민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2018년 10월 11일-14일 진행된 국제관함식에는 국내 군함들 외에도 미국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을 비롯, 12개국 17여척의 국제 군함, 45개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같은 시간 한반도 비무장 지대에는 그 해 4월 남북한 정상 회의의 결과로 지뢰가 제거되고 있었으나 정작 제주는 국제 관함식으로 미국의 전초기지임이 세계 만방에 선포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란 말을 하였다.



강정영자신문은 2018년 10월 국제관함식을 1면으로 다루었다.
 사진: 엄문희, 신유아, 최혜영, 한틀과 연합뉴스/사진 편집: 카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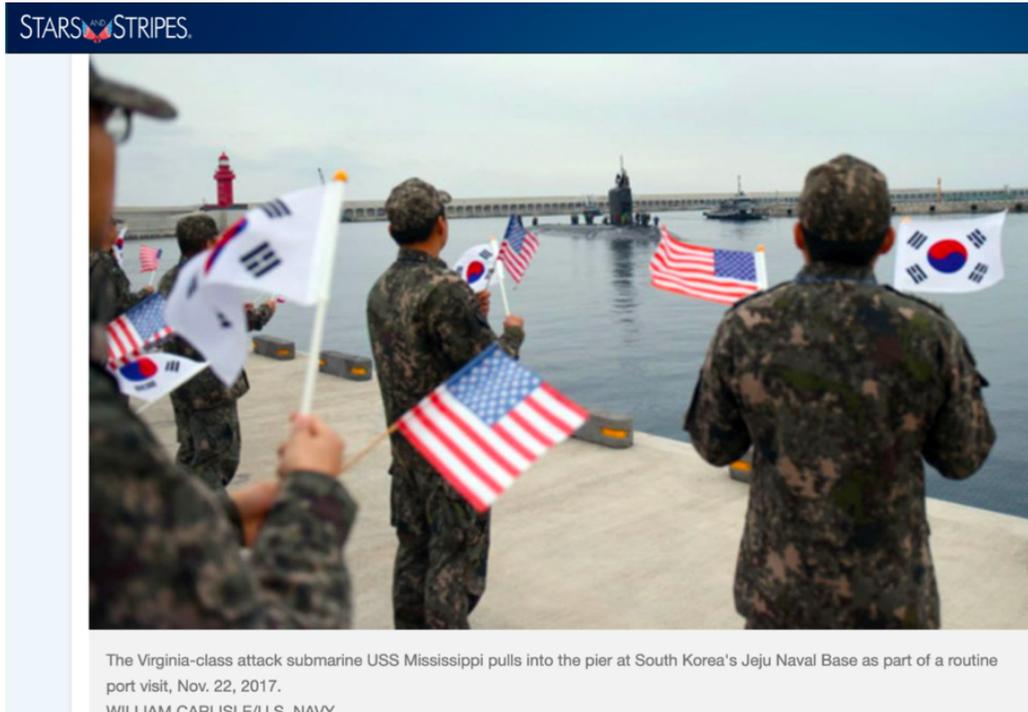
제주해군기지는 한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한국군 기지이지만 70년 된 굴욕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의 군함이 언제든지 기항할 수 있다. 미국 군함의 첫 입항은 2017년 3월 25일, 4.3 추모 기간에 이루어졌다. 2017년에 온 국제 군함들은 미 이지스 구축함 스테뎴, 미 이지스 구축함 듀이, 미 소해함 치프, 미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 캐나다 호위함인 오타와와 위니펙, 호주 함정 뿔버튼 함과 파라마타 함,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 그리고 강정바다에서 2주간 무단 작업한 미 측량함 헨슨 이 있다. 2018년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 관함식이 있었다. 2019년에는 미 해경함 버솔프가, 2021년에는 호주 호위함 발라랏이 왔다. 그리고 2023년 올해 2개의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와 랄프 존슨, 미핵추진잠수함 아나폴라스가 온 바 있다.

미 7함대 작전참모였던 데이비드 서치타는 2013년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대만 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는 미국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북양함대를 막을 수 있다. 또 중국의 동양함대의 측면을 공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또한 민군복합관광미항이란 이름을 갖고 있다. 완공이후에도 뜸했던 크루즈 운행은 올해 2023년 들어 연간 28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크루즈와 군함이 각기 내뿜는 오염으로 강정의 바다와 하늘은 빠르게 오염되고 있다. 대양해군, 해양강국을 꿈꾸는 해군이 몇 년 안으로 제주해군기지를 기동함대사령부 발족의 모체로 만든다면 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더불어 생태계 악화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이고 여러 다국적 해상 연합 전쟁 훈련들은 기후 재앙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평화의 섬’ 제주의 시련은 제주해군기지 완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른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라는 이름 아래 최근에 또다른 절대보전지역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인 강정천

을 위압적으로 가로지르는 군사도로가 거의 완공되었다. 강정의 또 다른 천인 악근천 역시 최근에 도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혈맥인 수맥을 자르는 도로 건설은 실상 제주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바 있는 비자림로 숲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잘려지고 천미천의 생태가 위협받는 가운데에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역시 도시우회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 건설 및 확장들은 표면상 군사적 목적이 내걸어지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The Virginia-class attack submarine USS Mississippi pulls into the pier at South Korea's Jeju Naval Base as part of a routine port visit, Nov. 22, 2017.
WILLIAM CARLISLE/U.S. NAVY

2017년 11월 22일 미핵잠수함 미시시피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당시
(사진: 윌리엄 커리즐/미 해군)

예를 들어 현재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산에 계획 중인 제2공항은 공군기지로서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다. 그런가 하면 절대보전지역인 오름들은 레이더 건설로 파괴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2022년 완공), 우주센터 건립 계획, 해상로켓발사장 계획 등은 우주 산업이라는 이름아래 군사화가 진전되는 제주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발과 군사화에 있어 이른바 민관군 협력, 또는 민관군 상생협약은 지역 주민들을 국가, 기업, 군대의 지배 정책에 순종적으로 복속시키는 제도적 용어와 장치들이기 일쑤이다.

2023년 10월 19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6천일을 맞는다. 강정평화네트워크 등 강정의 평화단체들과 개인들은 매일 7시 기지 앞 백배, 11시 미사, 정오 인간띠 잇기로 일상의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또한 생태, 평화, 여성, 젠더, 기후 위기와 같은 여러 이슈들에 끊임없이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강정에는 해양 모니터링, 해상 카약 활동, 강정천 모니터링, 합창, 춤, 여성병역거부, 페미니즘 공부, 평화대학, 평화 교육, 평화포럼, 토론회, 영상 상

영, 영자신문발간, 국제 연대, 섬들의 연대 등 여러 활동과 모임 들이 있다.

강정에는 많은 여성 지킴이들이 있으며 여성과 평화 운동에 관한 이슈는 투쟁 초창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15년 위민 크로스 디엠지의 방문을 계기로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을 기억해 왔다. 그 외에도 2019년에는 강정에서 3명의 여성이 병역거부선언을 하였고 이는 2022년, 강정을 비롯, 더 많은 여성평화활동가들의 병역거부로 이어졌다.



(사진: 방은미, 2019. 5. 24.)

1991년 10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국제협의회가 마련한 '평화의 섬 제주'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회의는 다음과 같이 평화의 섬을 규정한 바 있다.

"평화의 섬을, 첫째 제주도의 비무장화, 둘째 평화와 질서를 위한 중심지화, 셋째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센터화와 평화 연구·훈련의 장, 넷째 평화의 섬을 행동화하는데 능동적이고 지역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제주도민, 다섯째 평화의 개념과 일치하는 균형 있고 분권화한 자생적인 발전을 위한 장소로 규정한다."

(글 정리: 최성희)

■ 참고자료 2.

워크숍 토론과 제안

이틀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여성평화 활동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첫째 날, 다섯 곳의 활동가들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활동 소개, 활동의 성과와 그 동력, 활동에서 나서는 어려움 또는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발표자들에게 국제연대 현황, 입장이 다른 주민들 사이의 관계, 지자체나 지방의회와의 관계, 지역 운동의 확장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 후 참가자들은 다섯 모둠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에서 나온 활동의 어려움 또는 과제, 제안 등에 대해 모둠별로 열띤 토론을 하였고, 다음날인 14일 참가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토론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먼저 활동에서 나서는 어려움이나 과제에 대해 참가자들은, ‘평화’라는 말을 설명하는 데 나서는 어려움, 피해의 회복과 가해의 인식 사이에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지의 문제, 우리 안의 군사주의에 대한 인식, 현장 투쟁 후 공동체 활동이나 연구 활동과 조화로우며 지속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문제, 국제연대와 언어의 문제, 재정의 문제, 활동가의 자기 돌봄 필요성,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어려움 또는 과제들을 풀어나가자는 제안으로, 주어를 바꾸어 요구하는 구호를 함께 하자는 구호를 만들어보자, 안보의 문제를 넘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보자, 국제연대와 교육을 확장시켜 지역, 계층과 계급, 세대 간 공감을 만들어보자, 지역에서의 활동을 응원하자, 활동의 일상을 기록하고 나누면서 연결과 지속을 만들어보자, 활동가들의 자기 돌봄과 지구 돌봄을 통해 환경과 기후의 문제도 생각해보자, 활동의 일상을 기록하고 나누면서 연결과 지속을 만들어보자, 어떤 날을 기념하여 행동할 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공통의 날을 찾아보자 등등 제안들이 있었고, 이번 워크숍과 같은 모임의 중요성, 연대의 중요성에 특히 공감하였고 신뢰를 쌓아가며 연대해 나가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워크숍 이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우선은 내년 5월 24일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에 온라인으로 행동을 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를 열기로 하고, 그 안에서 준비팀을 꾸려 추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강정에서 깃발을 만든다면, 여성평화워크숍의 구호 제안”의 시간에 여러 구호들을 제안했는데, 그중 아래 다섯 가지 구호로 의견을 모으며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여성의 손으로 평화를 만들자
- 여성이 평화를 만든다
- 여성이 평화다 우리가 평화다
- 평화를, '여성'의 이름으로
- 세상을 바라보는 섬세한 눈과 깊은 공감의 마음과 생명을 돌보는 손길로 여성은 평화를 만든다.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눠주신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토론 내용을 정리해준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참고자료 3: 워크숍 발표자료 모음

- 경기(이정아)
- 평택(연꽃)
- 군산(오이)
- 성주(손소희)
- 강정(최혜영)

지역활동 공유

평화, 군축... 여성 참여 ■ 경기도 여성DMZ평화 걷기

2023.10.13. 이정아

2023년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주관 행사입니다.

정선 70년! 경기여성평화행진
정선 70년! 평화를 향한 경기여성행진

2023년 경기여성 DMZ평화걷기대회

일시
2023.05.20(토) 10:00~15:00

장소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프로그램
10:00 개회식
10:30 평화의 행진 - 남북자기비판 앞 출발
- 임진강역 맞은편 경기평화누리사건기념 전당
- 장성고 평양 - 통일대교 남단 - 임진각평화누리공원
- 남북자기비판 앞 도착(총 2시간 코스)
12:30 어울림마당 - 대동놀이
13:00~15:00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가맹점비 -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5:00 셔틀버스 출발

신청
5월 15일까지 구글폼수
(bit.ly/평화걷기)



주최: 경기여성네트워크 주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 여성 DMZ평화 걷기 배경

<한반도에 종전과 평화를!> 슬로건은 여성운동의 역사와 함께 해 왔음.

특히 2015년~2018년까지 이어진 "DMZ여성평화걷기"는

-1991년부터 93년까지 남북한 여성들이 직접DMZ를 종단했던 경험과 역사를 기억

-1997년부터 지속된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쟁 없는 한반도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걷기를 통해 "한반도를 생명, 평화, 상생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열망을 드러내기 위해 있었음.

* 남북 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

*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여 한반도의 영구 평화 기반 마련.

*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여성의 리더십 확대.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동의, 당일에 일어나는 실무 총괄을 맡는 등 적극적 연대의 장을 만들어 냄



활동의 성과와 그 동력

경기여성네트워크 9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연대/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자주여성연대

지역 여성운동 일상의 연대 공간

지역 성평등의제 발굴과 젠더거버넌스 적극적 활용 거점

관계와 자원의 공유를 토대로 13년째 현안 대응 플랫폼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9 경기여성네트워크+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출범
(2010)

2기
(2014)

3기
(2018)

4기
(2022)

여성의원 08명

여성의원 1/ 명

여성의원 21명

여성의원

'지역 01명+비례 6명('지역02명+비례 6명('지역 13명+비례 7명('지역16명 비례7명(



“DMZ여성평화걷기”에서의 경기 여성들의 삼각 연대 경험

- 경기 지역의 여성운동 조직력, 현장 실행력 확인(지역에서의 독자적인 운동방식으로써 지속가능성전망)
- 서울 중심의 여성평화운동가들의 기획과 총괄(연대 확장성 전망)
- 국제 여성평화운동가들의 국제적인 이슈화, 스피커 역할(이슈 파이팅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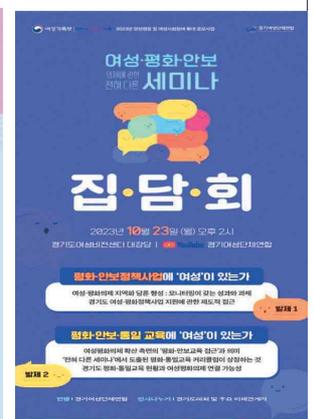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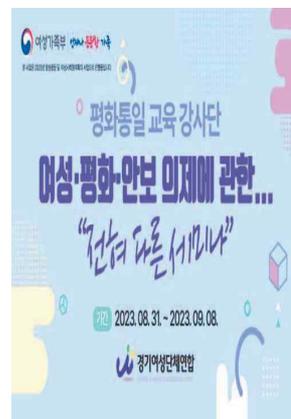
=> 여성평화의제 확산 ‘지역화’ 실현 가능성 타진

=> DMZ여성평화 걷기에 경기 지역 여성운동 조직들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핵심적인 배경
DMZ... “우리지역, 장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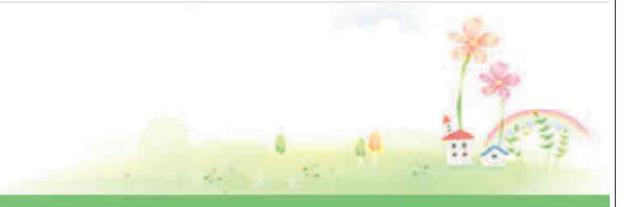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지역화 담론 형성을 위한 경기여성단체연합의 다양한 활동 사례

- 1) 전쟁 경험이 기억되고 말해지는 방식에 있어 세대, 지역, 무엇보다 젠더 차이에 주목해야 함.
- 2) 분단 상황이 개인의 생애에서 의미화 되는 과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
- 3) 여전히 중앙집중 또는 1인 전문가 집단의 선언적 의미 분석과 해석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직장·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단체



여성 연대의 힘! - 경기 중부 여성평화행동

1. 구성 시기 : 2021 가을
2. 참여 단체 : 안양/군포/의왕/과천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약 50여명
3. 운영방식 : 현재 조직 확장없이 동아리 방식으로 운영
4. 내용 : 지역 연대를 통한 평화통일 운동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평화통일사업 수원여성회

○ 목표

- 여성이 주체가 되어 일상의 삶 속에서 통일평화의식 강화
- 통일 평화 사업의 대중화, 일상화, 지역화를 위해 쉽고 재미있게 사업 진행
-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폭력 및 군사문화 타파, 전쟁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

1. 여성이 주체가 되는 일상 속 통일운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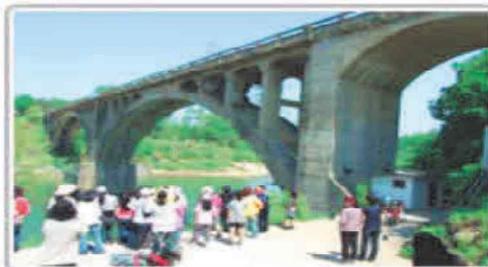
- 1) 일상적 반전평화 활동 경험 : 분과별 (주부/ 직장인) 활동 -> 5.4대추리 사건 비틀기/ 직장인 어린이 평화캠프
- 2) 6.15 정신 계승 사업 : 어린이 한마당 '기차 타고 통일 여행' (공동체 놀이활동)/ 열린통일강좌/ 통일강사단 워크샵 "여성! 통일 지기로 서다"
- 3) 통일평화위원회 운영 : 학습/ 통일 평화 강사단 조직 및 운영/ 금강산 기행

2. 통일 평화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 1) 통일평화기행 정례화
- 2) 다양한 방식의 통일교육 및 문화활동
- 3) 수원비행장 폐쇄 운동
- 4)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행동 : 평화순례단/비상시국회의/ 촛불문화제/ 평택 대추리 농활 참여 등
- 5) 통일평화기행 :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으로 크로싱 영화상영, DMZ걷기 등

3. 연대 사업

- 1)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 활동
- 2) 수원시민통일한마당 (매해)
- 3) 반전평화연대
- 4) 6.15 민족공동위원회 수원 본부
- 5)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및 한미FTA 저지를 위한 수원운동본부



활동과정에서 놓치지 않고 있는 질문

질문 하나. 보이지 않는 '지역 여성평화의제'

- 평화 안보에 관한 중앙(서울)의 정보의 독점적 지위는 지역의 여성평화의제 확산의 틈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판단.

질문 둘. 지방정부(경기도)에서의 평화 안보 사업 추진체계에서 보이지 않는 '여성'

- 경기도 : 평화 협력국(평화협력과,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 평화홍보담당관,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 자치 행정국(자치행정과), 환경국(북부환경관리과)
- 31개 시/군 : 평화 협력과. 평화미래정책관.복지정책과.문화체육과.행정과.투자 진흥과. 관광과. 안전 총괄과. 산림과. 등등에 배치

질문 넷. 나는 누구인가

- 대인 지뢰 및 불발탄 피해 여성들 : 국가 사무 또는 유엔, 국방부 등 군사정책 영역에 둘러싸여 지역에서 접근하기 어려움, 여기에서 성차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며 지역 의제화 될 수 있는가
- 민통선 ; 일상의 삶을 강제하고 있는 공간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경계.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일어나는 사안은 언제나 이곳이 뉴스의 초점이 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일상과는 다른.. 비 가시화 되어 있는 곳.
- 미군 기지촌 여성 : 파주, 고양,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평택시 등 경기도 내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었거나 현재 주둔 중이며 기지촌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온 주민들과 기지촌 여성의 삶은 같은 듯 다르게 낙인과 편견, 게토화
- 탈북 여성: 탈북민의 절대다수가 여성들이라는 것. 모든 삶의 경험이 삭제된 채 다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은 특히 지역 정책사업에서는 보이지 않는 문제... 초기 상담과정부터 난관

경기 여성DMZ평화걷기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경기도여성 중심의 한반도평화 실현”



- ① 미군 위안부 문제 구체화 관련 기존 조례 실효적 조치 마련
- ② 탈 북민 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자립 기반 지원 확대 및 경기도 특화사업 확대
- ③ 지뢰 및 불발탄 피해 여성 지역 조사 및 지원을 포함하는 경기도 여성평화안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④ 경기도 평화 안보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한 CL Y여성평화걷기 정례화
- ⑤ 경기도의 군대 내 성폭력근절을 위한 부대 인근의 성폭력상담 전문기관과의 예방 및 피해 지원체계구축
(2022전국 동시 지방선거, 김동연도지사(당시 후보)와의 정책협약 내용)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05-19 조례 제 66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45년 9월 8일 미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경기도 내 주한 미합중국 군대 기지촌 여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뉴스시스] 고범준 기자 =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원고인들, 경기여성연대 등 회원들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배상소송 8년, 기지촌 미군 위안부 소송의 조속 판결과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3. bjko@newsis.com

****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함으로써 대법,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책임 인정(2022.09.29)**

자료 출처 :

경기여성단체연합, <2019 경기도 평화통일 사업 내 여성참여 현황 및 기초조사>, < 2020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관한 지역화의 조건 찾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 이슈(wifi). 경기도뉴스포털<경기도 비무장지대DMZ>.경기도의회 <자치법규>

그림 출처 :

경기여성단체연합 카페 <2015~2018DMZ여성평화걷기 관련자료>. 2022 경기여성DMZ평화걷기 현장사진

평택평화센터 경험 나누기

발표자 : 연꽃(평택평화센터)

평택평화센터
https://www.peacept.org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대추안길5

ptpc@hanmail.net
031.658.0901

단체소개



평택은 70여 년을 미군기지와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평택평화센터는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다양한 문제를 시민의 시각으로 풀어가는 평화운동 단체로 미군기지 주변 환경감시와 범죄피해상담, 미군기지 사건사고 대응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시민단체와 미군기지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가며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PPT 내 사진은 평택평화센터로 제보를 주셨거나 활동가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02

순서



활동 이야기

무엇을 중심으로 둘 것인가?



성과와 그 동력

어떤 말들로 공감할 것인가?



어려움 또는 과제

평화활동 ... 그리고

* PPT 내 사진은 평택평화센터로 제보를 주셨거나 활동가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활동 이야기 1.

현장 + 직접행동 + 연구

반 군사주의

직접행동
(캠페인, 행진, 일인시위 등)
한미연합훈련반대
미군기지 주변지역 역사기행

법제도 개선

SOFA 개정
주민피해 지원제도 마련
조례 제정, 개정
환경오염 책임

피해주민

피해 주민 지원
미군범죄피해 상담센터
미군기지 환경감시활동

03

활동 이야기 2.

지역 주민의 일상적 피해

군소음



한미연합군사훈련
24시간 비행훈련
헬기 훈련

환경오염



생물무기, 탄저균 반입
기름유출 사건
공공하수처리장 폐수유입

사건사고



민간인 체포시도 사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음주 미군

시설물



주택가 레이더 설치사건
장동리 침수피해 사건
전투기 추락사건

최근 10년간 평택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관련한 사건사고

* PPT 내 사진은 평택평화센터로 재보를 주셨거나 활동가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04

활동 이야기 3.

무엇을 중심으로 둘 것인가?

가해자 중심

미군기지 철수
환경오염 현황
미군 범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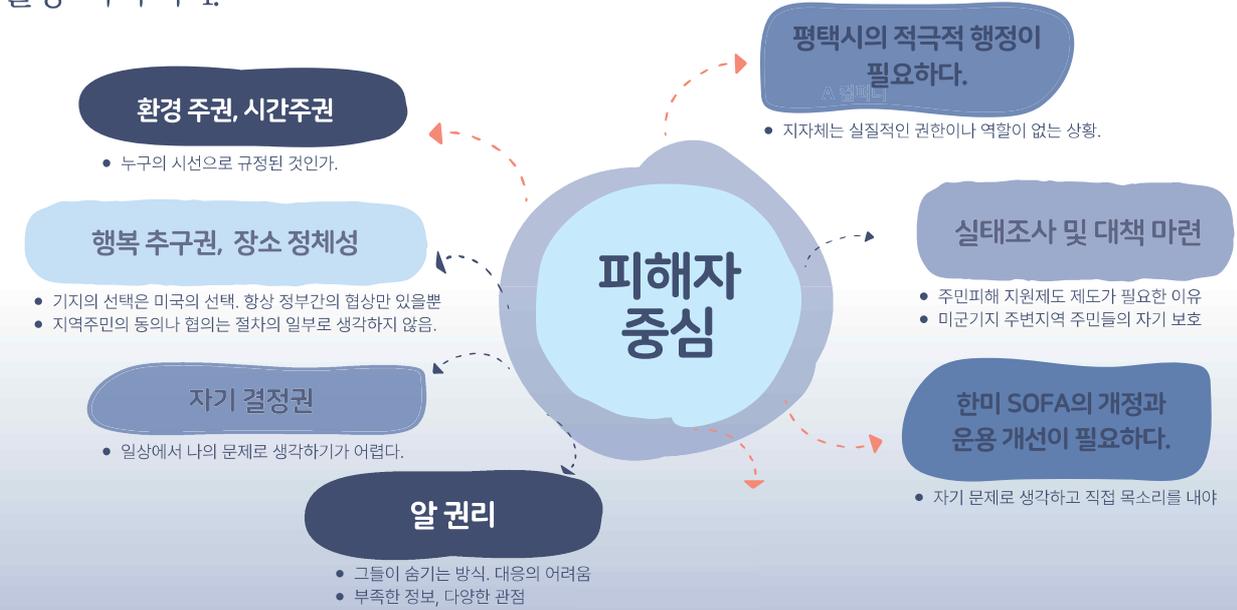
피해자 중심

피해주민 인권 등

미군 관련 사건사고와 문제는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무기수입 문제, 한미연합훈련 문제, 무기체험 문제 등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기가 어렵고 또 일상 차원에서 미군 관련해 나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정보도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정보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두루두루 공부하고 연구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현장에서 만나려합니다.

05

활동 이야기 4.



06

활동 이야기 6.



07



순서



활동 이야기

무엇을 중심으로 둘 것인가?



성과와 그 동력

어떤 말들로 공감할 것인가?



어려움 또는 과제

평화활동 ... 그리고

* PPT 내 사진은 평택평화센터로 제보를 주셨거나 활동가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활동 성과 1 주한미군 관련 지자체 조례 제,개정 작업

2020년 6월 일부내용개정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2016년 11월 14일 제정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년 5월 28일 제정

-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시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 마련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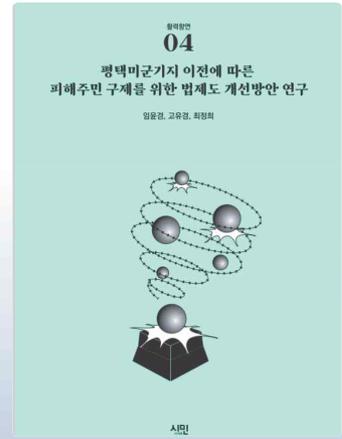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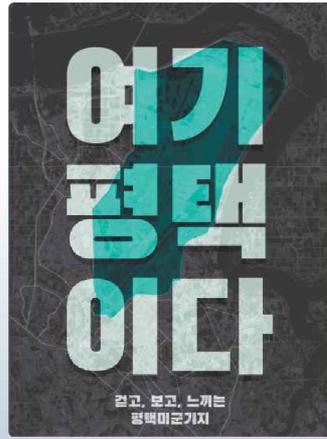
2023년 8월 3일 제정

- 주민발의조례로 준비. 자료분석부터 근거자료인 보고서 발간, 주민 간담회, 조례 내용까지 시민단체가 주도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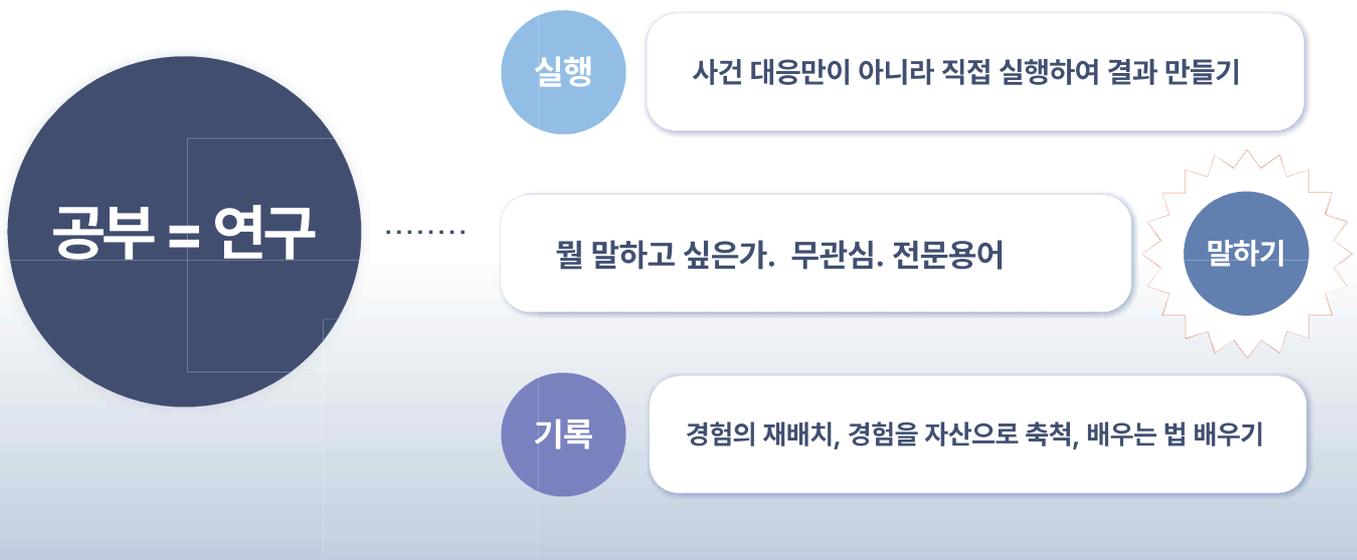
활동 성과 2 ... 자료 분석 및 연구 보고서 발간, 실행연구

- 공부를 해나가면서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고 마주했던 사례들을 정리하고 체감했던 제도적인 문제점을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완벽하게 정리된 이론은 아니어도 현장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정리된 보고서를 만들고 싶었다.



10

우리의 동력 1 ... 공부 = 연구(실행연구)



11

우리의 동력 2 ... 말하기



말하기

남들과 다른 언어, 불통의 언어
나만의 언어, 공감의 언어가 필요

부조리에 대한 문제제기만 하지 않기, 선언적이지 않기
지금 내주변, 현장의 문제, 어떤 이야기로 채울까.

스토리텔링

멀리 보는 힘

자기 목표를 가진 사람, 오래 일하는 비결
어떻게 성장(변화) 할 수 있나?

12

우리의 동력 2 ... 말하기(공감의 언어)

전달의 말

무거운 말
가벼운 말

평등(개념어)
'누구나 똑같이'로
쉬운 말로 바꾸기

일상 생활의 말

SOFA(전문언어)
'미군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전문어는 분야언어

현재의 말

'투쟁' 단어
다양한 구호가 필요하다.
현재말로 바꾸기

13



순서



활동 이야기

무엇을 중심으로 둘 것인가?



성과와 그 동력

어떤 말들로 공감할 것인가?



어려움 또는 과제

평화활동 ... 그리고

* PPT 내 사진은 평택평화센터로 제보를 주셨거나 활동가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려움

한국은 압도적으로 군사화 된 사회

'안보'
최우선 국정과제

극우부터 온건 좌파까지
하나같이 '안보'를 최우선.
안보를 경제적인 이익 시각으로
전쟁파병을 국가폭력이 아니라
'조국경제부흥' '애국'으로

초군사화된 사회

한국은 북한 총생산량의
2배를 국방비에 지출
무기수입, 수출 세계 10위안
국방비 59조 5885억원
청년예산 553억원
(국방비와 1000배차이)

무관심

체제에 비판적인 정보를
주변화, 가짜 뉴스화
누구의 시선인가?
자기 결정권

15

그리고 ... 과제

우리는 지금 무엇에 분노하는가.

잘 알려지고 가벼운 가십거리가 되는 것은 공론장의 중심에 들어가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침묵한다.

사회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임계설 3.5%

지금은 모두 선제공격을 외치고 압도적인 힘의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체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자꾸 주변화, 가짜 뉴스화 시키면서 결국 시민들을 지금 체제의 능동적 공범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관심은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사회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임계설을 믿습니다. 우리 인구의 3.5%가 진정한 평화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 사회가 변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6

감사합니다.

평택평화센터
연꽃

010-3853-4011

2023 제주여성평화워크숍 _ 공감과 연대

「 군산에서 부는 평화바람 」



오이(평화바람)



이

「 군산미군기지, 새만금 」

- 군산미군기지는
- 하제마을 팽나무, 새만금 신공항
- 미군기지와 새만금, 안보와 개발

이_군산미군기지(WOLF PACK)는

- 1920-23 지금의 군산미군기지과 주변 마을 간척(약 760만평)
- 1940 다치아라이 육군비행학교 군산 분교
- 1950-51 미군 제24보병사단, 기계화부대, 공군부대 주둔
- 1974 기지 확장, 주한미군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주둔
- 2002 탄약고 안전거리/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기지확장
- 2006 군산시 옥도면 직도에 미군국제폭격장 설치
- 2018 주한미군 육군2사단 소속 그레이이글 부대
- 2020 그레이이글 12대 배치
- 현재 미군기지 면적은 377만평, 대중국 전초기지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군산미군기지

중국을 둘러싼 전쟁의 위험
 : 중국-대만 전쟁, 북한의 공격을 명분으로 한 군사화

한국-일본-필리핀-미국의 군사동맹

한국의 서해안 전쟁벨트(평택-군산-성주-제주)
 오키나와의 군사화
 일본과 필리핀의 '(군사협력) 원활화 협정(RAA)'추진
 필리핀 내 미군 주둔 가능 기지 5곳 추가

하제마을 팽나무,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 **미군의 전쟁기지**



안보와 개발, 폭력(전쟁)과 착취





02

「 활동과 힘 」

- 현장을 중심으로 평화 만들기
- 현장, 사람, 연대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 수요집회_1997~

뽕나무 팽팡문화제_2020~

2023 10 21 토요일 오후2시

2023 군산기후평화행진
주요활동지점: 순안역광장
<https://url.kr/x6915u>

→ 백포고개(문선예술의 연방) · 인대묘야 · 일명사거리 · 명선사거리 · 구시중영동(이성당앞) →

새민금신공항공백지화

군산
수라갯벌을 지키자
미군기지확장반대

사전행사 01 수라갯벌 탐사
10월 21일 10:00-12:30
새민금신광명 앞 도로 (연차: 400명, 400)

사전행사 02 <수라> 보고 행진하자
10월 21일 10:30~

군산기후평화행진_2022~

현장과 사람들을 잇는 군산평화박물관_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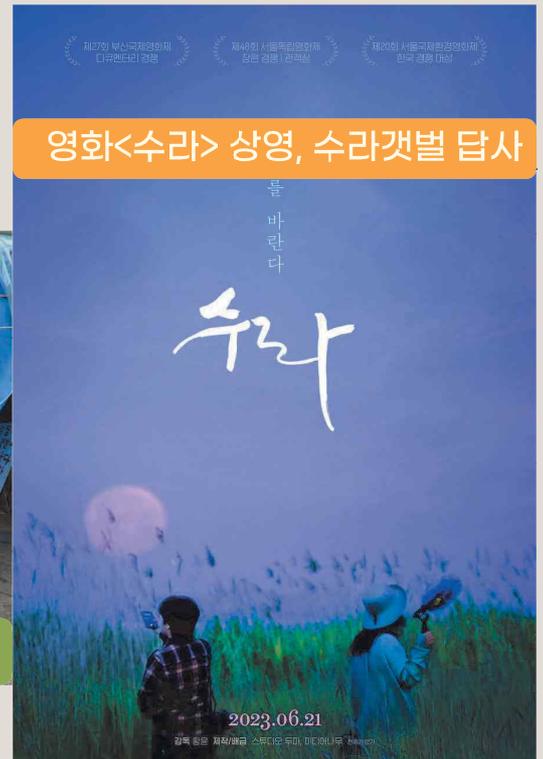


군산 지역연대 미디어프로젝트 난리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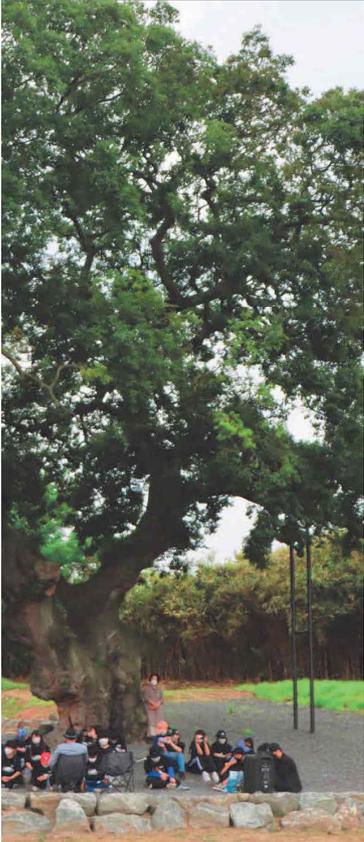
새만금신공항백지화 세종시천막농성

영화<수라> 상영, 수라갯벌 답사





사람, 현장, 연대



03

「 어려움과 과제 」

- 사람
- 다가올 투쟁에 어떻게 대비할까?

소성리 마을길을 지키고, 버티고 선 여자들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배치가 성주로 결정하자 성주군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한반도 사드배치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성주군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다양하게 여러각도에서 나타났다. <동네미술탐>은 옷과 현수막에 사드반대하는 성주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제작했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평사단>은 날마다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서 율동으로 투쟁했다. 그리고 파란리본공작소를 운영했고, 평화여성들과 싸우는 노동자들이 글쓰기모임<다정>모임을 시작했다.



2016년 9월 한반도 사드는 성주주민의 거센 반발로 철회되지 않았고, 성주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산골마을 소성리로 배치결정되어버렸다. 그 길로 소성리 마을길은 날마다 전쟁을 치뤄야했다. 성주촛불은 소성리 촛불로 위치가 변동되었고, 참여자들의 구성도 변하기 시작했다.



소성리 주민들은 마을총회를 열어 사드반대를 결정하고 마을회관을 사드반대하는 세력에게 열어주었다.



사드가 배치될 진밭으로 올라가는 외통수길인 진밭교에는 원불교 교무님들이 철야기도를 시작하면서 평화교당을 세웠다.



한반도 사드배치 결사반대를 외치던 전국의 연대자들이 소성리로 모여들었고, 소성리주민들은 사드배치를 막아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날마다 날마다 소성리 마을길을 지키고 선 소성리어자들















미군과 사드장비, 유류차는 소성리 마을길을 통행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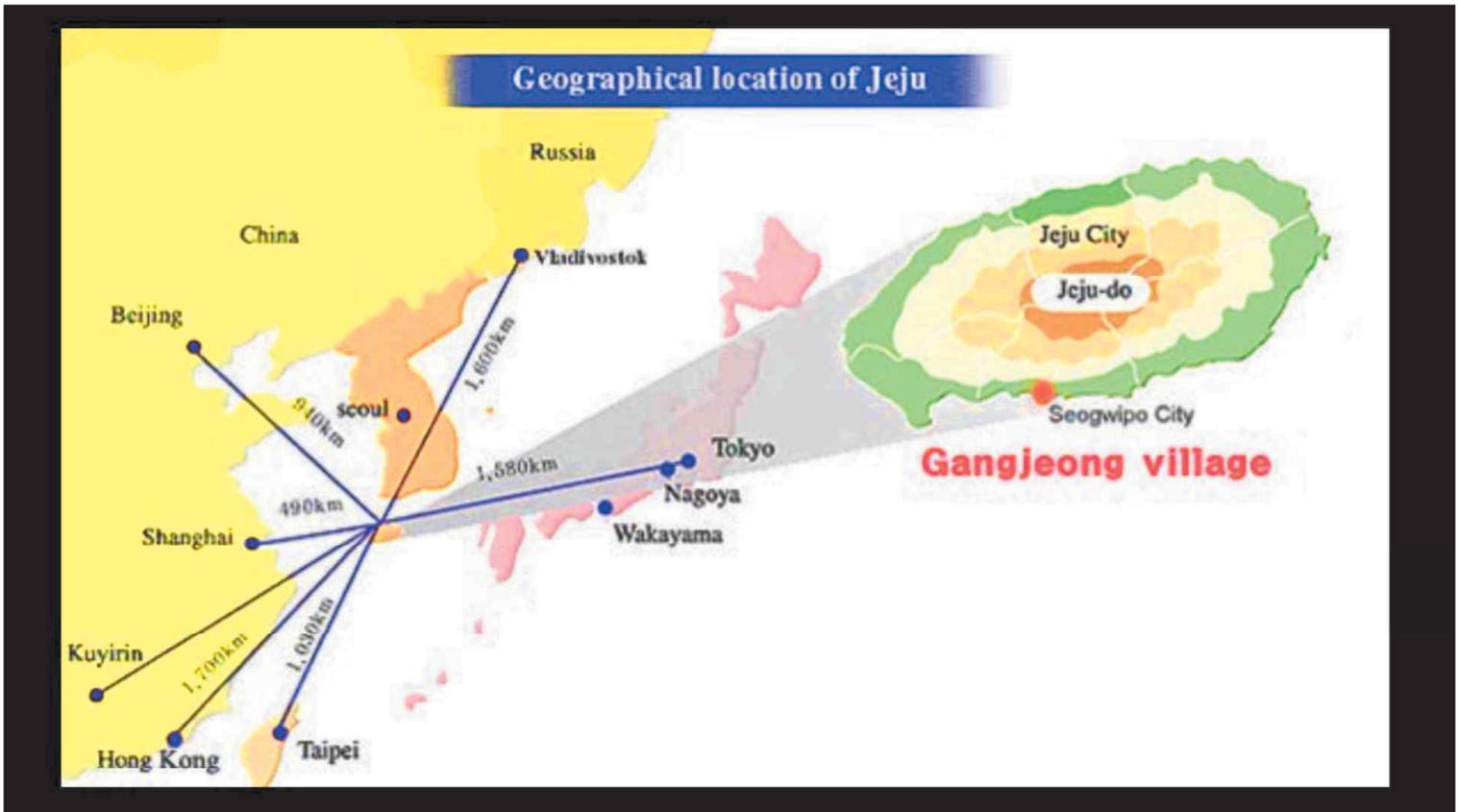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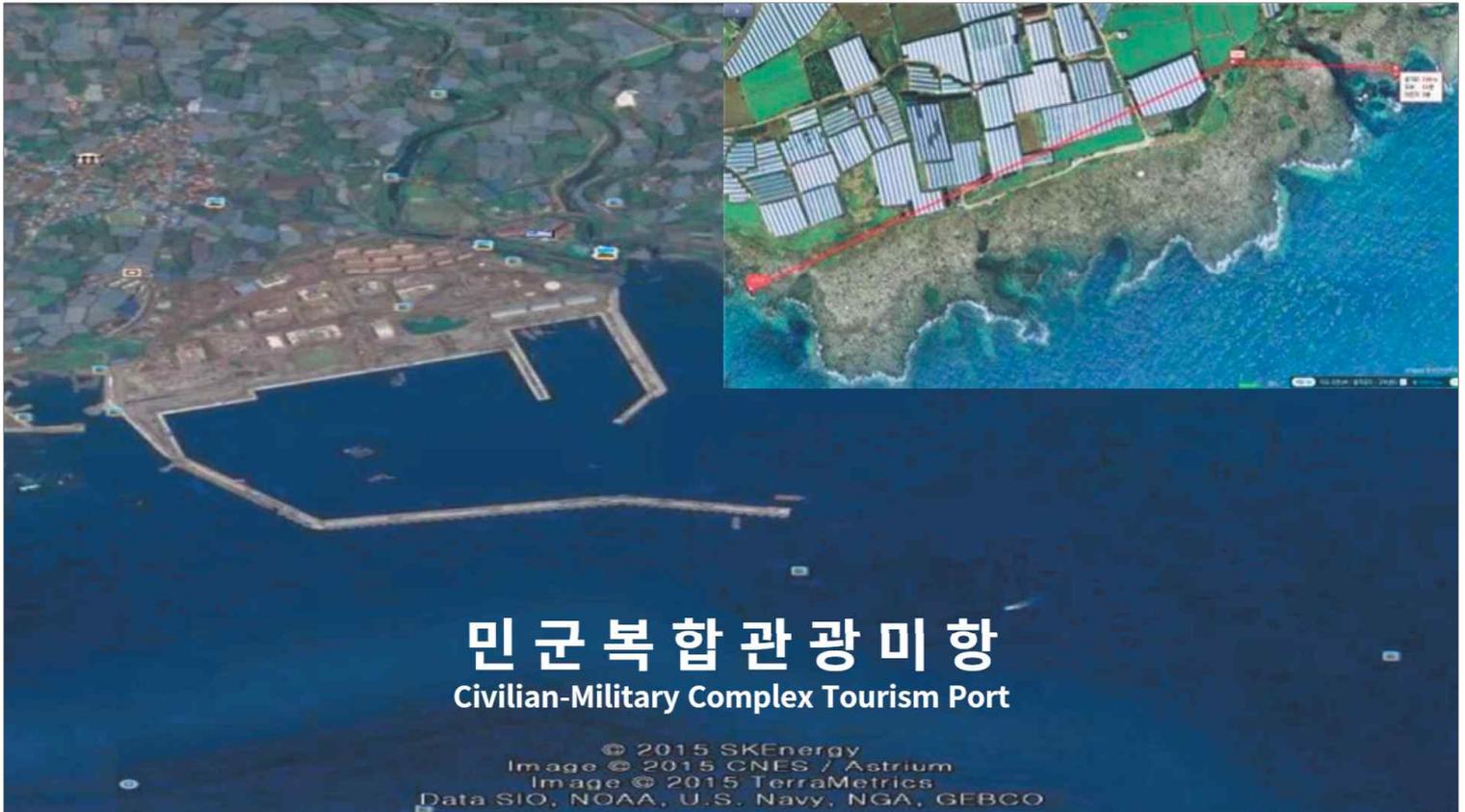
강정 평화 운동과 강정 지킴이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최혜영
강정친구들 사무국장,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 일상 행동

GANGJEONG DAILY ACTIVITIES



Photo: Pang Eun-mi



오전 7시 생명평화백배

7 AM
100 BOWS
FOR LIFE
AND PEACE

Photos: Jeong Seon-nyeo

오전 11시 길 위의 미사 11 AM STREET MASS

Photo: Pang Eun-mi



12 PM HUMAN CHAIN

낮 12시 인간띠잇기 & 강정댄스

Photo: Pang Eun-mi



Photo: Lee Sung-joon



Photo: Ha Ae-Jeong



COMMUNITY LUNCH 할망물 식당



Photos: Choi Hyea-yeong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

"강정의 дай버들은 개발과 국가 안보의 폭력적인 흐름 앞에 비인간 행위자들, 물속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보기 어려운 생명들에 대해 말한다."



강정등대 (2022년)



강정등대 (2015년)





연산호란?

"부드러운 산호로 부드러운 걸면과 유연한 줄기구조를 갖춘 산호"



폴립 (poly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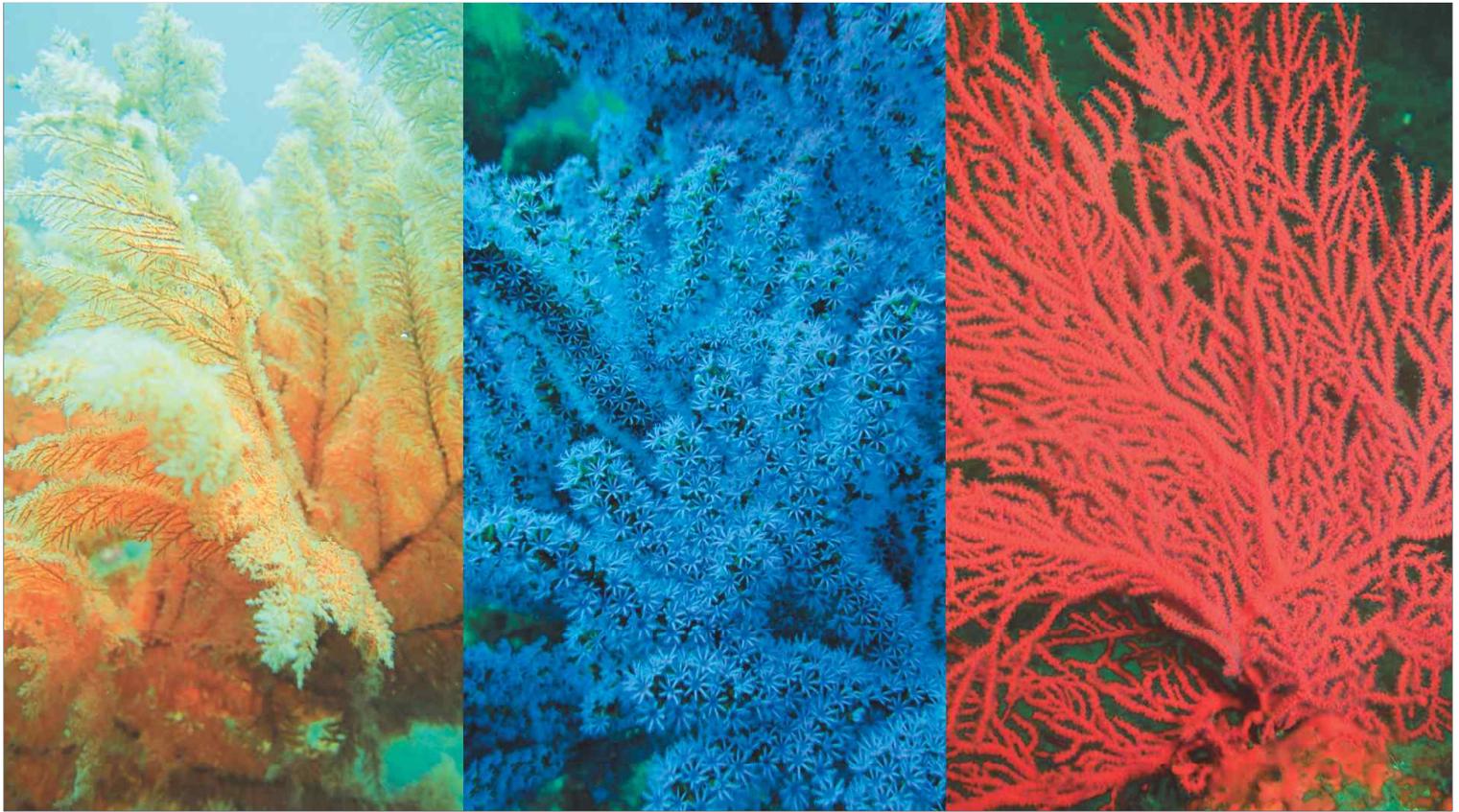
모든 연산호는 군체(colony)를 이루어 살아간다.

군체(colony)에 부착되어 있는 폴립(polyp) 하나하나가 독립된 생명체이다.

폴립은 독립적인 하나의 생명이지만 폴립들이 모여 사는 군체가 있어야 살 수 있다.

폴립이 모여 버섯 모양이나 나무 모양의 군체를 이루고, 또 군체들이 모여 산호 군락(reef)을 만든다.

"스스로 전체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부분"



"이 기록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평화를 살아내고, '함께 살기' 선택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김중미)

"일상적 저항행동인 '우리의 노동'을 통해, 권쟁기지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저들의 노동'이 다른 사람의 삶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존엄이었다." (오뚜희)

"현실이 제한하는 박자와 공식을 벗어나 불확실한 가능성의 세계에 몸을 맡기는 평범하고도 비범한 댄서들이 있습니다." (이재호)

강정에 사는 지킴이들의 이야기

돌들의 춤

3월 7일 발간



우리들의 이야기

- 참가하시는 동기와 하고 싶으신 말씀은?
- 참가를 마무리하며: 인상적인 것, 좋았던 점은?
- 참가를 마무리하며: 아쉬운 점, 개선·보완하면 좋을 것, 제안하고 싶은 것은?
- 참가를 마무리하며: 여성평화워크숍 구호(제안)

참가하시는 동기와 하고 싶으신 말씀은?

기대되는 시간들입니다.

여성들의 평화 이야기 더 경험해보고 싶어요

오라고 하셔서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계의 소개로 참가.

여러지역 평화활동가들을 만나는 것이 기대됩니다

공감과 연대를 통한 에너지 충전!

현재 정세 나누기

다른 지역의 여성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는것이 기대됩니다~

다른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고 배우고 싶어요.

여성들의 경험을 듣고 함께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성평화운동가 동료동지들을 만나고 싶어서죠!

요즘 자주 아프지만 그때 아프지 않기를 바래요

제주의 군사기지화를 막고 싶습니다. 이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만 말고 행동으로.

감사합니다.

연대

같이 합니다!

기대됩니다!!

"참가동기: 배움과 연대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인간의 완성은 평화를 통해!

고맙습니다.

초대. 남성들이 국가차원에서 (시민사회에서도) 주도하는 평화통일 운동의 rhetoric이 사적이고 관계의 dimension을 전혀 다루지 않게 때문에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과 지혜를 배우고 활력을 느끼고자 합니다.

준비팀 :)

참가를 마무리하며_ 인상적인 것, 좋았던 점은?

- 가장 좋았던 것 - 우리들의 공통점 찾기
-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좋았다.
- 선물나눔을 하면서 자신의 선물을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 하고 나누어서 더욱 특별해지는 느낌인데, 서로의 서사를 알게 되어 좋았다.
- 채식식단이어서 감동이었고 잘 먹었습니다.
- 좋았던 점 : 만남이 힘이다. 나의 뒷배, 우리의 뒷배, 서로의 뒷배 우리가 모두의 힘.
- 선물을 나누는 시간도 좋았음. 물경의 의미를 부여하는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었음
- 온 몸과 머리와 가슴이 000 된 느낌이었음
-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지식 생산
- 가장 좋았던 점 -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힘이 되어 좋았습니다.
- 만남 자체가 좋았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행복
- 무엇이 좋았나!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어 좋았다.
-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교육
- 첫 만남 감동!
- 한국에 와서 제일 편향하고, 자유롭고 stimulating한 모임이었습니다.
- 좋은 점 :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10년, 15년, 7년, 8년 ,, , 그만큼 쌓히고 단단해진 경험들이 전해져 어제, 오늘 우리의 힘이 되었을 확인해 기뻐했습니다.
- 당신들을 만나서 애뜻했고 반가웠고, 힘이 되었어요 ♡♡♡
- 맛있는 밥, 활동 공유 감사합니다
- 공감·연대 제일 좋았습니다.
- 좋았던 점 : 각 지역의 투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다. 계속 다양하게 연대 필요
- 만남 자체가 좋았어요. 각 지역의 이야기 듣기가 좋았어요. 선물나눔을 통해서도 더 알게 되었어요. 백배, 인간띠 잇기 참여 좋았어요.

참가를 마무리하며_ 인상적인 것, 좋았던 점은?

- 전국 각지에 있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한 곳에서 들을 수 있어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 다양한 활력을 만날 수 있었어요.
- ♡
- 좋았던 점 : 각 지역의 (현장_이야기를 여성활동가 혹은 여성지역주민의 관점으로 나눠서(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 (안전한 관계, 환경이라 자유로움), (더 가깝게 느껴져서 친해진 것 같음)



참가를 마무리하며: 아쉬운 점, 개선·보완하면 좋을 것, 제안하고 싶은 것은?

- 현장과 현장 사이의 차이에 대해 세심한 성찰을 할 수 없었습니다.
- 시간이 짧아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사전 준비를 하고 왔더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웠습니다.
- 아쉬운 점, 없다.
- 식사 시간이 좀 더 길면 좋겠다.
-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유익했지만, 투쟁의 현장터, 혹은 역사가 있는 장소를 탐방하고 그 장소에서 좀 더 프로그램이 구성되면 좋을 거 같아요.
- 말과 글 위주의 워크샵이라 조금 아쉽다. 좀 더 다양한 예술성이 결합되기를 바란다. 몸으로 표현하기, 동작으로 공감&연결하기, 그림 카드·만들기 작업 등
- 주 강의실 환기가 잘.. (안돼요ㅠ)
- 잡담을 나눌 시간이 부족
- 성인지/젠더 감수성이 필요한 부분 -> “여성”, “남성” 이분법적 언어 사용 -> 성소수자 포용성이 필요
-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평화 (몸 세레모니)
- 시간이 짧아 소통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점
- 1박 2일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 다시 만남시다.
- 아쉬운 점 : 시간이 부족해서 발언 기회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했다.
- 첫날 깔깔 시간이 있었지만, 끈끈함을 나누는 뒷풀이 하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 노래 부르기, 춤 배우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 누울 수 있는 곳 (있으면 좋겠어요)
-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것 : 앞으로 할 것, 소 그룹으로 다시 만나서 자세한 제안 만들 시간
- 소규모 그룹 토론시간 부족
- 함께 논의할 시간이 더 +
- 다른 현장에서 개최될 워크샵이 기대가 됩니다.
- 시간 짧음

참가를 마무리하며_ 여성평화워크숍 구호(제안)

- 평화로 세상을 바꾼다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 여성이 평화다 우리가 평화다 (설명 : 과거,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즘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선언하기)
- 평화는 온다!
- 세상의 평화를 여성의 힘으로!
- 세상을 바라보는 섬세한 눈과 깊은 공감의 마음과 생명을 돌보는 손길로 여성은 평화를 만든다.
- 여성의 이름으로 평화를 잘자
- 여성이 평화다! 평화를 살리자!
- 여성이 평화를 만든다!
-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 No Women No Peace
- 평화를 여성의 힘으로!
- 여성의 힘으로 평화
- 여성의 손으로 평화를 만들자
- 평화를 “여성”의 이름으로
- 평화는 미래의 역사다!
- 평화는 삶이다!

“2023 제주여성평화워크숍_공감과 연대를 후원하고 준비해주신 분들”

강정평화네트워크 최성희,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김성환 신부 및 직원들,
여성병역거부자모임 보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와 김은희,
평화와자유를위한국제여성연맹 고유경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 제주여성평화워크숍
공감과연대**

제주 강정마을 일대,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서귀포시 말죽로 187)

10.13.금 -
10.14.토

첫째날
경험나누기,
배우기, 힘주기

둘째날
연대와 실천

주관
강정평화네트워크
경기여성네트워크
여성병역거부자모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원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문의
010 . 4767 . 1053
031 . 233 . 8673
(경기여성단체연합)
02 . 929 . 4847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2023©박지혜